



2014리옹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다녀와서



고미경

한국도서관협회
자격관리TF팀 대리
kmk@kla.kr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이 주최하는 제80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가 프랑스 리옹(France, Ryon)에 있는 리옹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8월 16일(토)부터 8월 22일(금)까지 “도서관, 시민, 사회: 지식을 위한 융합”을 주제로 150개국의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간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30여 명의 국내 각 도서관 관장 및 관계자가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였는데,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 A-380 최신예 여객기로 파리를 경유하여 개최도시 리옹에 입성하였다. 늦은 오후, 도도히 흐르는 론(Rhone) 강을 마주보고 있는 힐튼호텔에 짐을 풀면서 일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어 참가자 및 한국에 관심있는 참가자 모임

한국어 참가자 모임은 2009년 밀라노WLIC 때 처음으로 공식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첫해인 2009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였고, 이후 2010년 예테보리WLIC부터는 우리 협회가 주관하였다. 올해로 여섯 번째 개최되는 이 모임은 8월 16일(토) 오후 6시 45분부터 한 시간 동안 리옹컨벤션센터 Salle Rhône 1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개회사, 최은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이 축하인사를 하였으며 시니카 스피라(Sinikka Sipilä) IFLA 회장과 애니 도런트(Annie Dourlent) 프랑스국가위원회 위원이 직접 참석하여 환영사와 정감있는 대회소개를 해주었다. 그리고 최영순 외교부 국립외교원



▲ 한국어 참가자 모임

도서관 관장의 과거 대회 참관기, 송지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담당의 국가도서관 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회의에 대한 소개 등을 발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도서관인의 밤



▲ 한국도서관인의 밤

8월 16일 오후 8시부터 이번 대회의 한국인 참가자들을 위한 ‘한국도서관인의 밤’ 행사가 한국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힐튼리옹 호텔의 야외 식당(BRASSERIE DU HILTON)에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대회참가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희윤 회장의 인사

말과 신기남 명예회장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와 담소를 나누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

개회식은 8월 17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리옹컨벤션센터 Amphithéâtre에서 전 세계 150개국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제라르 콜롬브(Gérard Collomb) 리옹시 시장과 브루노 라신(Bruno Racine) 프랑수아르립도서관 관장의 환영사와 시니카 스피라(Sinikka Sipilä) IFLA 회장의 개회사, 브누아 하몽(Benoît Hamon) 교육



▲ 개회식

부 장관과 오렐리 필리페티(Aurélie Filippetti) 문화통신부 장관의 인사말,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인 베르나르 스티글러(Bernard Stiegler)의 '독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및 프랑스의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시니카 스피라(Sinikka Sipilä) IFLA 회장은 "정보 접근과 개발에 대한 리용 선언서"¹⁾ 발표하고 UN Post-2015 개발의제를 이용하도록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UN회원국에 촉구하였다.

전시와 포스터세션



▲ 전시회장



▲ 포스터세션

8월 17일(일)부터 8월 20일(수)까지 운영된 전시는 100여 개 단체에서 도서관 관련 서비스 및 홍보 관련 부스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의 새로운 도서관 관련 정보와 기술들을 선보였으며 전시개막과 함께 전시파티가 현장에서 열렸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참가한 총 200여 개 팀의 포스터세션이

1) <http://conference.ifla.org/ifla80/node/522>

전시장 바깥쪽 로비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5개 팀이 참가하였다.

주제발표

대회조직위원회와 IFLA는 WLIC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8월 17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Auditorium Lumière에서 '첫 참가자 모임'을 준



▲ 주제발표

비하였다. 해마다 마련되는 이 자리에서는 IFLA의 목적과 구성, 2014년 대회 안내 그리고 개최지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주었다. 이를 시작으로 5개 부회와 43개 주제별 분과의 주제 발표 등 200여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NILP SIG) 회의에서는 '융합시대 국가의 도서관정책: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최은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발표자가 주요 국가의 도서관 정보정책과 그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문화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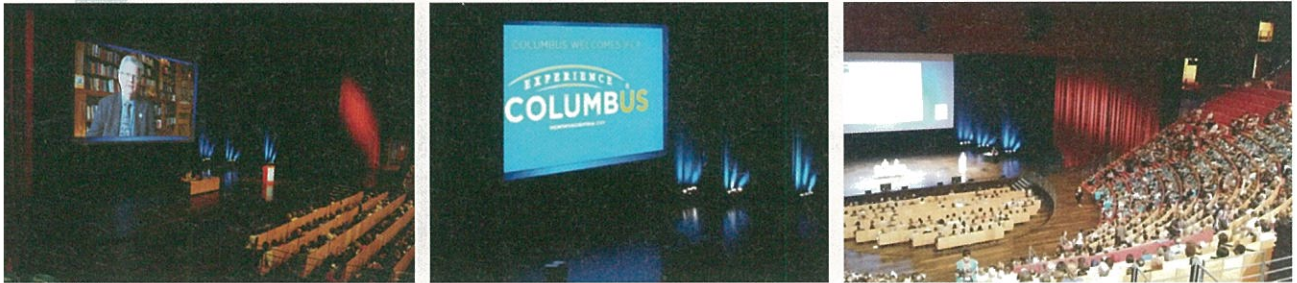
▲ 문화행사

본 대회참가자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8월 19일 오후 7시부터 컨벤션센터에서 다소 떨어진 리옹합류지구의 손(Saone)강 유역에 1930년대에 지어진 La Sucrière(전 설탕창고)에서 개최되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서들과 함께 간단한 칵테일을 즐기며 댄스파티를 즐기는 흥겨운 자리였다.



폐회식

우리 협회 윤희운 회장, 이현주 사무총장 및 참가자 대부분이 참석한 폐회식은 인사말, 새로 임명된 이사 소개, 상장 수여, 메달 수여, 차차기대회 개최지 발표 등의 식순으로 이루어졌다. 상장은 포스터세션 우수작 등에 주어지며, 메달은 IFLA운영 공로자에게 수상 되는데 공교롭게도 2006년 서울WLIC의 주역인 알렉스 번(Alex Byrne) 전 회장과 피터 J. 로(Peter J. Lor) 전 사무총장이 지명되었다. 알렉스 번 전 회장은 영상으로 전한 인사말에서 서울WLIC에 대한 진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본인 회장 임기시 가장 영광스러웠던 행사로 기억한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2016년 개최지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로 결정되었다. IFLA의 구미·유럽세력의 횡포가 또다시 작용하였다는 이현주 사무총장의 조심스러운 소견을 들으면서, 그래도 200여 명 이상 똑같은 복장을 갖추어 입은 자원봉사자들의 열기를 뒤로하고 마지막 리옹WLIC의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행사장을 떠날 수 있었다.



▲ 폐회식

도서관 견학

8월 22일(금)은 IFLA에서 주관하는 방문도서관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사전에 혹은 참가 등록 시 방문하고 싶은 도서관을 신청하여 각자 신청한 방문도서관의 출발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후 버스로 또는 해당 장소에 모여서 인솔자를 따라 도서관을 견학하였다.

또한, 우리 협회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견학을 직접 주관하였다. 1368년 루이 11세에 의해 왕립도서관으로 창설되어 1996년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 새로 개관²⁾하였으며 약 150만 권의 장서와 각종 자료 등, 6천여 명의 연구진을 위한 종합시설인 이 도서관은 책을 반쯤 펼쳐놓은 높이 79m의 I자형 건물 4개 동으로 이루어

2)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이 1988년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기점으로 최고의 시설과 규모로 확충을 단행하여 1996년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 새로 개관한 이 도서관은 그의 이름을 따서 미테랑도서관(Bibliotheque Francois-Mitterrand)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어져 있는데 각각의 유리건물은 법(Loi), 숫자(numero), 문자(lettre), 시간(temps)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일반열람실은 16세 이상 일반인이 1일 이용권 또는 1년 이용권을 사용하여 이용(단, 매일 오후 5시 이후 무료)할 수 있으며, 연구열람실은 18세 이상 연구원, 학자, 박사과정 학생이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나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도서관답게 그 규모와 장서량·직원 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선진국 도서관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듯하였다. 또한, 이 도서관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곳으로 1972년 프랑스국립도서관 직원으로 근무하던 故 박병선 여사가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찾아낸 곳이기도 하다.



▲ 프랑스국립도서관 방문

마치며

2014리옹WLIC의 참가는 도서관, 사서라는 공통된 주제와 관심사를 가진 전 세계의 도서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며 다른 나라의 발전된 도서관의 모습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으며, 또 한 가지 의미를 더 찾자면 업무상 사무실 안에서만 일하던 필자에게는 평소에는 인사만 나누기에도 바빴던 현장의 사서들과 대화기간 내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여서 더욱 값진 시간이었다. ㉠